

건축저널의 여성성 Femininity of Architectural Journalism

이오주은 / 건축프리랜서 기자
by Michaela Y. Oh

글을 시작하면서

저널계의 대선배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글제를 받았다. “건축저널 속 우먼파워의 세계와 저널리즘의 향방 점검”, 세부적으로는 “국내 각 건축잡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저널리스트를 중심으로 그들의 활동상을 살펴보고 건축 저널리즘의 현재와 향후 과제를 전망한다.”였다.

가슴이 뛰었다. 몸담고 있으면서도 저널 내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 저널리스트의 활동을 정리하는 것은 다음으로 미뤄야 할 것 같다. 사실 건축잡지 기자는 거의 여자, 여럿이 모이면 남자기자는 왕왕 청일점이 된다. 조경과 인테리어 잡지를 포함해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 것이다. 이에 반해 데스크는 남성의 비율이 높다. 1세대 건축평론가라 불리는 전진삼·이주연 선배님과 <건축과 환경(이하 C3)>의 이우재 편집장님 등이 각기 다른 포지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故 최연숙 편집장님이 살아 계셨다면 <와이드>의 정귀원 편집장님과 함께 여성 편집장으로서 쌍벽을 이루었겠지만, 안타깝게도 4년의 투병 끝에 지난 8월 고인이 되었다. 그 밖에 <SPACE(이하 공간)>의 임진영 기자와 <PLUS>의 최순영 기자가 고참기자로서 역할을 다하며 차세대를 기대하게 한다.

하지만 다시 필드로 돌아가 보면 짧게는 수개월에서 보통 1년 만에, 남녀 불문하고 이 ‘기자님’ 들께서 어디론가 사라진다. 지금도 작년에는 본 적이 없는 얼굴들이 취재 현장을 도맡고 있다. 이런 즈음에 건축 저널리즘, 그 중에서도 여성 건축저널리스트를 정리하는 것은 실명을 호명한 뒤 따를 후폭풍을 감당한다 해도-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다. 그러나 의미 있는 주제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언젠가 건축 저널리즘의 계보를 정리할 수 있을 때, 제대로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건축계에서 건축저널의 위상이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입지와 흡사하다는 생각을 했다. 사실 건축계가 상당히 마초(Macho)적이고 보면 건축을 남성애, 건축저널을 여성애 대비시켜도 무리는 없을 것 같다. 기자로서 느낀 한계이기도 하지만 건축저널이 활로를 모색할 때 ‘여성성’이 새로운 키워드가 될 수 있겠다는 기대도 담겨 있다.

‘근육의 시대는 가고 여성의 시대가 왔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여성’이란 말 속에 소수자, 비주류 같은 전통적인 코드 말고도 다음 시대가 요구하는 대안이라는 새로운 의미가 부각된 것이다. 실상을 생각하면 아직은 괴리감이 있지만, 한 편에서는 탈-권위, 감성 기반,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도덕성과 일의 완성도까지 시대의 요청을 충족시킨다는 평가를 여성들이 받고 있다. 이는 여성의 본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소수자로 생존하기 위해 후천적으로 터득한 캐릭터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리고 보면 비주류이기 때문에 학습하게 되는 경쟁력을 건축저널에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우선 체질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매체를 정의해야 할 테니 당장의 일은 아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내일의 거대담론보다는 찌라시처럼 흘날리는 오늘의 현상을 얘기하고 싶다. 왜 건축잡지의 처지가 흡사 여자 같은지에 대해서.

건축저널의 여성성

남성과 여성처럼 건축개실무와 학계를 통틀어와 건축저널도 대등하지 못하다. 그러나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 외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권위 있는 건축잡지가 많을수록 그 나라의 건축 수준이 담보되는 것을 보면 이는 우리만의 현실일 뿐이다. 그 점을 건축저널보다 건축가들이 더 아쉬워한다. 그러나 언뜻 보기엔 저널이 발전할 토양이 형성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않다. 지난 20년간 건축 저널리즘에 대한 논의는 생각보다 많이 있었다. 무크지 <간향>은 1989~1990호에서 ‘건축과 저널리즘’에 대해 총론에 가까운 특집을 냈으며, <건축가> 1993년 8월호 특집 ‘한국 건축저널 그 바람직한 모색’, <건축문화> 1999년 1월호 논단 ‘건축언론 재고’ 등을 비롯해 특히 <건축> 2006년 6월호는 저널리즘을 다룬 가장 최근 기획특집인데, ‘건축과 언론, 건축과 저널리즘’이란 제목으로 잡지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한 데 모여 건축저널의 현재를 진단하고 향방을 모색했다. 반면 건축역사학회 월례회의는 2002년 11월 ‘독일과 이탈리아의 건축저널을 통해 본 건축문화’를 주제로, 유럽과 한국의 건축저널을 비교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며, 이 밖에도 많은 칼럼을 통해 잡지 내외부에서 문제점

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대체로, 매체 저마다의 철학을 가지고 특화될 것, 더욱 세분화된 전문 잡지, 양질의 담론과 비평, 이슈 발굴과 아젠다 형성, 잡지로서의 유연성과 재미 등을 요구하며, 요즘엔 특히 국내 건축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에 강한 불만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잡지에 대한 애정, 한 매체의 독자가 되어 그들의 시도를 모니터하는 노력은 수반되지 않는다. 어느 기사가 좋았고 어느 기사가 나쁘다고 꼭 집어 말할 수 없는 것은 잡지를 읽지 않은지 오래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건축가는 만성화된 회의와 불신으로, 저널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감으로 불평등의 역학 관계가 자리 잡아간다. 다수의 건축가들이 기사를 만나면 “난 잡지 안 봐요, OOO 같은 외국 잡지를 보지.”, “이 작은 나라에 무슨 잡지가 그렇게 많대요? 다 똑같으면서, 모두 없애고 하나만 남기라고 하세요.”, “그 잡지 아직도 나와요?”, “기자들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이름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등으로 첫 인사를 대신한다. 매체와 기지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혹자는 생각 없이 사진으로 도배한다고 해서 건축 포르노라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인정 못 받는 건축잡지 기자가 어디를 가도 ‘기자님’, ‘기자님’ 하면서 융숭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에 기자들은 쉽게 의기양양해지는데 그 본질은 바로 건축 포르노의 죽지 않는 힘에 있다. 그리고 <공간>이나 <C3> 기자라면 과분한 대접은 더욱 노골적이 된다. 솔직히 어느 회사 신입사원이 명함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런 대접을 받아보겠나 싶다. 이 또한 건축저널의 부인할 수 없는 여성성이기도 하다. 기사도가 여성에 대한 존경심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가의 마음속에 기자의 자질에 대한 냉소가 가득하더라도 깎듯한 예우에는 흔들림이 없다. 그만큼 잡지는 건축가에게 중요한 홍보수단이고, 지명도를 높이는 유용한 매개체이다.

건축전문기자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대한민국 남자들의 머리 안에는 ‘여자가~’라는 생각이 녹아 있다. 마치 그 ‘여자가~’처럼 건축전문기자들도 건축계 안에서 또 밖에서 ‘건축잡지 기자가~(기자가?)’, ‘우리나라 건축잡지가~(언론인가?)’라는 인식에 잡혀 있다. 주체적일수도 독립적일수도, 주도적일수도 주류일수도, 기득권일수도 없는 건축저널, 거기다 불경기가 오면 얼마 버티지 못하고 폐간 아니면 심한 구조조정을 결정해야 하는 것마저 경기침체 앞에서 표적 실업의 대상이 되는 여성과 꼭 닮았다. 그 건축잡지 기자의 성비가 보여주는 불균형, 4~5년 전까지만 해도 남자가치가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입사지원자마저 여성이 대다수인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 같다.

<꾸밈>지 주간 시절을 회고하는 글에서 김정동 교수는 “건축기자로 몇 년을 일해도 건축적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심지어 건축기자 하면

장가 못 간다는 말도 있었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어도 나아지기 보단 더 심각해져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건설 경기는 점점 나빠지는데 건축저널에 종사해서는 비전도 생계도, 그나마 이상의 실현도 무엇 하나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가장이 될 남자들은 더욱 몸담기 어렵고, 여자들은? 그녀들도 결국 물이 새듯이 출판, 홍보, 기획 업계나 다른 매체로, 또는 대학원이나 결혼 등으로 어디론가 빠져나가고 있다. 건축잡지 기자가 결혼이나 진학과 병행할 수 있는 드문 직종임을 생각해보면 이는 인력의 누수 현상이다. 그렇게 살 길을 찾아가지 않고 열악한 급여와 복지, 낮은 대외 인지도를 극복하며 버틴다 해도 편집장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경력을 쌓는 동안 확보한 그들만의 전문성이 생산적으로 분출될 만한 시스템은 없다. 대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판 편집자로 유도하거나 후배 기자를 관리하며 잡무를 보는 내근직을 권유한다. 내가 본 통계로는 일반적으로 5년을 넘기지 못하고 필드로부터 들어 안게 된다. 그러나 전문건축기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니 기사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필드에서 뛰어 야 한다. 건축잡지를 제외하면 건축저널리스트를 양성하는 매체도 없는데 이렇게 훈련받은 인력들이 몇 년 안에 조로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000 기자

나는 2000년대 초 즈음에 잡지사로 진로를 정했던 것 같다. 학생 때었는데, 설계수업을 들으면서 가닥을 잡았다. ‘제 설계의 개념은 이러한 것으로서...’ 본인은 적어도 자신의 디자인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했지만 나는 발표 때마다 사기 치는 기분이 들어서 그런 말을 하기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건축이란 행위가 그 자체로 처음부터 반-자연적이며 권력 지향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개념에선 ‘인간을 중시하는’, ‘친환경적인’ 같은 수식어를 쓰지만 결과물을 보고 있노라면 그와 반대였다. 그 때 건축계에는 노출 콘크리트나 부식시킨 강판 등의 재료가 인기 있었고, 빈자의 미학이나 파주출판도시가 한국건축의 진로에 뭔가를 제시하고 있었으며, 해체주의나 미니멀리즘, 다시 화란에서 건너 온 굽어지는 형태가 대유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건축가 없는 건축’이란 말을 들었을 때 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었고, 오랜 시간에 걸쳐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동네를 보면 그 안에 인간의 삶을 존중하는 공간의 손길이,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구축의 진실이 들어 있다고 느꼈다.

이런 고민은 아파트를 배울 때 더욱 심했다. 지금은 많은 건설 회사들이 브랜드를 걸고 실현한 형태지만, 그 때는 판상형 대신 타워형, 오픈 스페이스의 확보와 커뮤니티 형성 등이 단지 설계의 개념을 주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30~50층을 넘는 수백분의 일 우드락 타워를 보고 있노라면-오늘날 실물을 보면서도 마찬가지로 느끼지만-주거에서 인간이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아파트에 살게 될 이주민도 재개발에 밀려난 원주민도 모두. 그리고 이런 갈등, 물신자본주의가 팽배해 가는 시대에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에 대한 딜레마는, 건축

을 학문으로서 존경하던 한 학생으로 하여금 건축저널을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다.

2005년, 나는 위와 같은 편향성을 품고 건축의 저널리즘을 고민하던 매체, 월간 <건축인 POAR(이하 포아)>의 기자가 되었다.-<이상건축> 이 같은 해 정월에 폐간한 탓에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잡지는 <포아>뿐이었다.-드디어 꿈을 실현하게 된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매체라면 편향성이 뚜렷해야 한다.'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인 긴장감을 원했다기보다는 열린 대화, 무한 소통을 꿈꾸었다. 예를 들면 (재)개발을 지지하는 저널과 반대하는 저널', '해외파를 지지하는 저널과 국내파를 옹호하는 저널', '현란하게 꼬부라진 건축을 좋다 하는 잡지와 꼬르뷔지에 이래 근대건축의 언어를 고수하는 작품을 찾아내는 잡지'... 이런 식으로 그러나 더 많은 성찰을 담아서 매체가 자기만의 철학을 기저에 깔 때, 같은 작품을 다루더라도 다른 평가와 해석을 보여줄 수 있으니, 언론이라면 당당하게 편향성을 드러내 매체의 도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 쉽게 말해 좌와 우, 진보와 보수랄까.

그러나 건축잡지는 전문지니까 정치색을 띠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진보와 보수가 정쟁의 상징이 아닌데, 전문적이라는 말이 곧 가치 중립을 뜻하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 좌·우, 보수·진보란 표현 자체를 공격적으로 받아들여 반감부터 드러내고 한다. 그러나 사람은 모든 현상 앞에서 입장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사안에 따라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으로 취해지는 것뿐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 건축계는 어느 분야보다 좌편향과 우편향의 혼란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양성의 공유란 견지에서 말이다. 하나의 사안에 다양한 해석이 공론의 장에서 모이고 그것이 담론의 자격을 얻어 건축계에서 유통되고 소비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건축 저널리즘이라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편향성에 관대한 만큼 상대의 편향성에 개방되어야 하며, 그러한 합의 속에서 생각이 교류할 때 건축계 전반에서 건설하고 풍요로운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당시의 생각을 지금 정리하자면 대략 이렇다.

그러나 2009년, 그 기자는 이전의 믿음에 대해 이렇다 할 말이 없다. '아니' 라고도 '기' 라고도, 그는 변두리의 인물이 되어 있다, 불과 5년 만에, 각설하고, 이 같은 희의를 활자화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 알아주길 바란다. 그러나 이해받을 것을 포기하더라도 오랜 고민 끝에 펜을 들었다. 공교롭게도 한국의 2009년은 보수가 패권을 획득한 해이다. 진보의 상징, 김수환 추기경,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석 달 상간으로 고인이 되었으며, 진중권씨는 종대에 이어 홍대까지 강단을 잃고 매카시즘의 중심에 선 것으로 보인다. 한예종은 이러한 변화에 또 다른 신평탄이었다. 이뿐이겠는가, 2008년부터 불과 2년 사이에 광장도 촛불도, 미디어도 사이버도 보수에 재편되는데 성공하고 있다. 잃어버렸다는 10년 동안 잠시 진보로 치우쳤던 중도는 어느새 보수에 동의하고 있는데 스스로 자각 하는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건축계는 이념보다 경기에 민감하다. 과연 그럴까? 사실 정치

와 경제를 떼어 생각하는 것에 어폐가 있다. 경기가 위축되면 사상계는 확일화를 요구받는다. 그러나 21세기의 경기 침체는 조금 다른 반응을 끌어내고 있는 것 같다. 미국, 특히 일본, 그리고 유럽은 우리와 동시대의 불경기를 겪으면서도 다른 정치적 선택을 했다. 이를 보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보수가 정권을 잡는다.'는 말이 옛 말임을 증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경제부터 살려놓고 보자'는 사람들이 패권을 잡았다. 그리고 이런 발상이 오늘 우리의 관심사인 건축저널에도 매우 오래전부터 실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 왔다. 여기에 앞에서 말한 건축가들의 냉소와 무관심이 더해지면, 사실상 건축 저널리즘이란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소외된 주제와 같다.

공공재로서의 건축 저널리즘

협회지의 역할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업지에 의존하는 것이 한국 건축저널리즘의 현실이고 보면, 매달 잡지를 내는 영세한 출판사들은 어떻게든 팔리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어떻게든 경비를 줄이고 몸집을 줄여 일단 살고 보는 것 이상으로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 올해 들어 건축잡지들은 노동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수없이 받고 있는 인턴 제도를 여과 없이 받아들여 이제는 인턴 혹은 학생기자의 이름으로 채용시장의 패권을 재편하고 있다. 한 매체에서는 기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정규직에 한해 석사 이상으로 자격 요건을 높인 적이 있는데, 일부에선 공감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거품이라는 비난을 등에 업기도 했다. 기자는 학력이 자질의 척도일 수 없다는 것, 기자의 자질이란 시사를 읽는 안목과 그 의미를 전달하는 기자 정신, 대사회적 사명감에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발행인은 편집장에게 스스로 살아남는 건축잡지가 되어야 한다고 부끄럼 없이 말한다. 문화 사업이란 생각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벌이를 하라는 것이다. 편집장은 기자에게 스스로 살아남는 기자가 되라고 한다. 회사에 바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벌이를 하라는 것이다. 자유방임과 적자생존, 살아남는 방법이면 모두 설득력을 갖게 되는 미국식 시장논리가 공공재인 저널리즘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건축계가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가를 보여주는 증후이다. 비단 건축저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것이다. 조금 다른 상황이 <공간>이라고 보이지만, 적자를 감수하는 물량공세가 언제까지 가능할는지-개인적으로는 오래오래 가능하길 바라지만-사실 그 물량이 잡지의 '상품성'에 투자되는 형국으로 보인다. 저널의 지적 노동이 생산한 재화-사진, 글, 취재, 기획 등-에 대한 정당한 시장가격을 형성하는 데 쓰이는 것 같지는 않다.

2005년 1월과 2006년 10월에 <이상건축>과 <포아>가 각각 폐간했다. 그 후 4년이 넘게 흘려어도 그것이 건축계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논하는 포럼조차 없었다. 그러나 이들이 사라진 후 건축계에서는 서서히 저널리즘이 종적을 감추어 갔고, 담론은 천연기념물이 되며 국내 건축계에 대한 진단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 나가고 있다. 2008년 창간한 격월간 <와이드>가 그 공백을 채워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Women architects and Era of Design Competition

그러나 그 발행인단은 간향미디어로 시작했던 20년 전부터 “우리는 모임과 그 구성원이 겉으로 드러나는 실체형이 아니다. 각자의 길에서 의견의 합이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의기 촉발되는 가상의 실체라는 것이 더 적합하다.”(건축문화, 1997년 6월호)라는 철학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건축의 공공재로서 저널을 인식하게 하는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공간>과 <C3>가 지난 7월호와 8월호로 각각 지령 500호와 300호라는 기록을 세웠다. 또 최초의 건축전문지를 표방하며 198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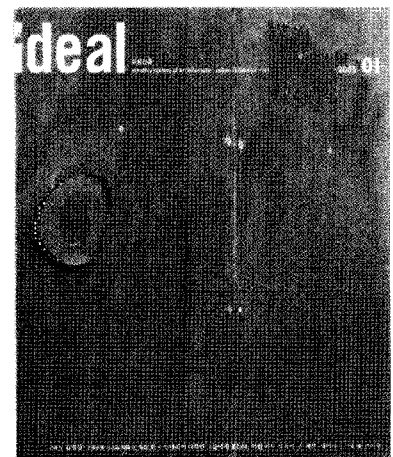
창간한 <건축문화>가 외형상 견재하다. 그러나 <건축문화>는 대부분의 건축잡지들과 마찬가지로 매체 정신보다는 생존 그 자체를 최대 쟁점으로 삼고 있으며, 한국 건축잡지의 해외 진출이란 점에서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C3>와 <공간>은 우선시하는 가치가 조금 다른 것 같다. 나는 얼마 전부터 건축잡지가 아닌 종합 방송과 시사지에서 건축 저널리즘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나 아직은 그 길을 알 수 없다. 다만 건축잡지에 지원하는 많은 기자 지망생들이 ‘어떤 건축기자가 되려는지’에 대한 확신이 선 다음에 이곳에 발을 들여놓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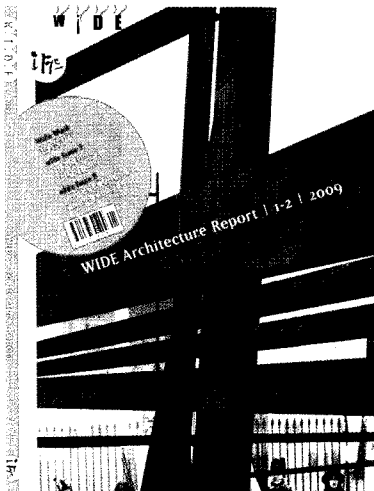
월간 건축인 POAR(2005년 10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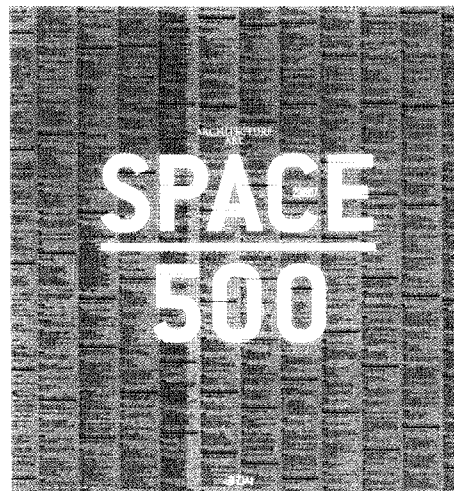
격월간 꾸밈(1990년 4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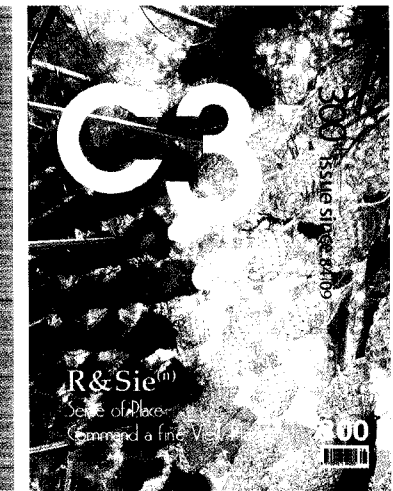
월간 이상건축 IDEAL(2005년 1월호)



격월간 건축리포트 WIDE(2009년 1~2월호)



월간 SPACE(500호)



월간 C3(300호)